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晤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투명한 의식을 즐기는 자마저도 없다(3부)

| 초현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초현님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말 깨어있기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 천강님과 함께 연습을 했고 그때 '내가 없음'을 경험하고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로서 해야 할 일도,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즐길거리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를 '나'가 없다고 하니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며 복잡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투명한 '나 없음'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하고 안락했기에 5년여를 그 속으로 즐겨 들어가 있다가 최근 '그것을 즐길 나'마저 없으며, 그때 도리어 '내가 없는' 정성, 이유 없는 생명의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한 평화의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인터뷰하였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서 이어서)

천 : 그러면 처음에 물병이 보였다면 '나는 물병이다.'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초 : 그렇죠.

천 :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던 것으로 따지게 되면 '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단지 '있는 것일 뿐'이지.

초 : 그렇습니다. 물병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물병인 것일 뿐...

천 : 그럼 내 눈에 천강이 처음으로 띄었다면 '나는 천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초 : 그렇죠. 사실 '천강'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허 :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띄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초 : 그건 본성이죠. 본성이 본다는 것은 '아무런 데이터 없이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천 :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물병을 봤을 때 '이게 나다'라고 느껴집니까?

초 : 안 느껴져요.

천 : 그러면 본성으로 보면 '나'라고 느껴져요?

초 : 아니죠.

천 : 그럼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죠?

초 : 제가 없잖아요? 없는데 느끼는 것은 무엇이나면, 나타난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 :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것은 느껴지나요?

초 : 느껴지죠, 초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허 : 초현이 없다는 것을 아는 본성은 있지만, 초현은 없다?

초 : 그렇죠. 이 공간에 초현은 있잖아요. 그런데 초현을 아는 '그것'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쨌든 알아차리니까...

허 : 알아차리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초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고도 못합니다. '있다'면 그것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종이라거나 불펜이라거나 등등. 그런데 '그것'은 판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 :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과정을 겪으며, '나라는 것이 없는 것



이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죠?

초 : '없다는 것' 은 초창기에 알았고요.

천 : 그다음에 '진짜 나는 뭐지?' 라고 궁금해진 것인가요?

초 : 네.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을 아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도 없다는 거죠. 더구나 그렇게 묻는 놈도 없고,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지니까 없다는 것이 점점 확연해진 것이지요.

천 : 처음에는 그것을 깨달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해진다? 의심 없이 전혀?

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바라보는 놈도 없고, 묻는 놈도 없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의심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의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 데이터죠. '없다는 것을 본다' 는 것도 데이터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그 말을 들으면, 진짜로 없어지는 줄 알죠? 그냥 개념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초창기 통나무집 연습에서 우리가 컵을 봤을 때 그 경계 안이 탁탁 잡힐 때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려면 당연히 개념 없어진 이 물건의 이름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보인다' 고 설명을 하겠죠. 물론 '이름이 없으니' 라는 말도 벌써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천 : 그러니까 투명의식 속으로, 본성으로 가까이 갈수록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니까?

초 : 그렇죠.

천 : 지금 '내가 없다' 는 것이 확연하고, 나뿐 아니라 이 모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초 : 그러니까 살죠. 모르니까 살죠.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알면 못살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천강 님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천강 님이 나중에 나에게 해를 입힐 거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모르니까 살죠. 또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요.

천 :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초 : 공기와 같다고 보면 되죠, 데이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천 : 일반적으로 모르면 답답하다고 느끼잖아요.

초 : 처음에는 그런 기간도 있었어요. 모르니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상해지는 것은 아닐까? 쉽게 말하자면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풍도 오고, 일본처럼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 옆에 살겠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의 해안에 집 짓고 살겠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지을 수 있겠죠.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똑같아요.

천 :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초 :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집짓고 잘 사는 거죠.

천 :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초현이 있고, 어느날 본성을 발견한 다음, 아~ 모든 것이 없구나를 발견하고, 모르니까 살 만한 이유가 돼서 산다? 그럼 과거로부터 있어온 데이터는 점점 지워집니까?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죠?

초 : 초현을 떠올리면 그 데이터들도 나타나요. 초현의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것은 충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도 시켜요.

천 : 발전은 누가 시켜요?

초 : 본성이 봐도 발전을 하게 돼요. 일을 자꾸 시키니까. 본성이 발전도 시키고 공부도 하게 하고 책도 보게 하고 디자인도 하게 하죠.



천 :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본성이 뭐가 필요해, 성공하고 잘 먹고 잘살면 되지'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초 :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 할 때 좀 그래요.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까 언급한 그 '나비'를 보는 텅 빈 마음의 시점만 알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그 시점을 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나비를 봤을 때, 아무 생각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시점을 알아서, 그걸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천 : 그러면 본성이 나타난다?

초 : 그렇죠. 그 시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시점에 대해 질문을 조금씩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죠. 대체적으로 안 믿어요. 뭔가 벗겨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시원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천 : 그런 건 없나요?

초 : 네. 그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천 :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순간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그 체험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죠?

초 : 어떻게 보면, 통나무집에서 2박3일 연습한 것을 통해 그것이 강력하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를 볼 때 경험하는 것은 미묘하니까 강력하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것을 찾지도 않고 의식이 거기로 가지도 않죠.

천 :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초 : 네. 사실 그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의 귀함을 어떻게 와 닿게 해야 할까? 와 닿지 않고는 안 되니까 말이죠.

천 : 이것이 소중한 중요하다는 것을?

초 : 네. 그를 위해 그 경험을 강하게 증폭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2박 3일 동안 우리가 했던 연습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강하게 증폭만 해주면 와 닿을 거예요.

천 : 깨어있기를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했는데 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초 : 자기 전에 잡다한 생각을 하지 말고, 놀이 삼아 내면에 의식을 보내 보면 어떨까 해요.

천 : 내면에 의식을 보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초 : 그것은 내면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면을 보며 '나라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의식이 거기서 좀 더 뛰어놀겠죠. 생각에 지배당하면 의식이 못 뛰어놀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줄어서 의식이 좀 더 뛰어놀게 되면, 내면의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하겠지요. 그러다보면 그 내면의 공간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평안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 별을 보며 점점 편하게 된 것처럼.

천 : 내면의 작은 공간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에 따라 '초현'이란 사람을 꺾테기로 만드는 거죠?

초 : 예. 그리고는 그 안에서 궁금해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다 보면 어딘가에 방이 생길 거예요.



그 방을 체험하면, 다른 방이 궁금해지고 계속 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늘 본성 속에 있었다는 것이 알아채지죠.

허 : 그러면 초현으로 사실 때보다, 본성을 발견하신 후 어떤 점이 더 좋나요?

초 :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 그냥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허 :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초 : 그렇죠. 그것이 일단 편하고 깨끗하니까요. 깨끗한 것을 보고 의식이 그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유리창을 닦지요. 어떻게 보면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닦고 싶어요.

허 : 그러면 초현으로 살 때는 편하고 깨끗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초 : 그렇죠.

허 : 그런데 생활하려면 초현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 : 그렇죠. 초현은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재능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하니까 내보내고…. 이렇게 선택해서 시킬 것 아니겠어요?

허 : 초현으로 살 때는 불편하고 깨끗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유익하고 쓸모가 있다?

초 : 예, 쓸모가 많죠. 나무를 켠다거나 화초에 물을 준다거나. 어떨 때는 상도 주고, 아까처럼 맛있는 빵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예요.

천 : 대부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길은 특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 본성을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수한 길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실제로 이 길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갈 만하고 후배들에게 오라고 할 만해요?

초 : 갈 만하죠. 정말 갈 만한 공간이에요. 이 의식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가 올 거라고 봐요. 제게 5년간 여러 가지 경험이 온 것처럼 말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감정 덩어리로 존재한 것이라면 의식의 길을 가면서 일상의 경험 하나하나가 엄청난 공부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전부, 나에게 공부거리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예고가 센 사람들이 다가오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저렇게 예고가 세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돼요. 옛날 같았다면 그 하나하나에 반응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 감정들과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쁜 놈, 좋은 놈,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 덩어리로 존재했을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5년이 지났다면, 그냥 감정 덩어리로만 남겠죠. 판단 덩어리들로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아무런 배움이 없었을 거예요. 경계만 짓다가 말았겠지요. 그런데 의식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커다란 공부가 되었습니다.

천 : 그러면 깨어있기의 화두인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확연히 와 닿는가요? 초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 : 공부라는 말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것 속에 존재하는 것이



고, 이것 역시 마음 자체에 붙잡힌 덩어리 감으로 있는 것이기에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관찰 자체를 통해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덩어리가 관찰되기에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공부과정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허 : 그러면 감정적인 문제는 없으신가요?

초 : 일어나긴 다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이 저를 자리잡고 휘두르진 못하죠.

허 : 오랫동안 괴롭히진 못한다?

초 : 네. 전반적으로 얽힌 구조가 보이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초현을 통해서 아까처럼 표면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죠. 위로한다든가 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아픈 것이 클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끝에 가서는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게 되죠. 그러나 "아프니?" 라고 해줄 때도 있죠. 그게 초현이 할 일입니다.

허 : 초현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문제될 게 없으신가요?

초 : 그렇죠.

허 : 감정이 일어나긴 하나요?

초 : 일어나죠. '지금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도 감정이죠. 저에게나 그쪽이나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지금은 이 단계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예를 들어 지금은 배고픈 게 우선인데 거기다 대고 '너의 의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일단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죠.

허 : 화는 안 나시나요?

초 : 화는 많이 없어졌어요.

허 : 혹시 화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초 : 화가 올라오면 본성이 바로 알아채요.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리

는 동시에 사그라들어요. 화를 꺾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과거의 흔적 덩어리가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바로 알아차리게 돼요. 순간적으로 바로 알아채는 거죠.

허 : 화가 나타나는 순간에 알아챈다?

초 : 그렇죠. 객관적으로.

허 : 알아차리면 저절로 화가 수그러드나요?

초 : 네. 알아차리는 순간 그렇게 되죠. 내가 감감한 물 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전체를 보고는 바다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전에 '이것이 뭘까?' 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적어지는 것과 같아요. 모든 분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두려움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화가 저절로 사라지죠.

천 : 화가 났다는 것은 화와 초현이가 붙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본성이 그것을 보는 순간, 화와 초현이 떨어져나가나요?

초 : 떨어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그라드는 거죠.

천 : 화에 대한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초 : 그렇죠. 확 사그라들죠. 굉장히 짧은 순간이라, 말로 '사그라든다' 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확 녹아든다고나 할까요?

천 : 화뿐 아니라 기쁨도 그런가요? 어떤 감정이든 똑같이.

초 :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은 다.

천 : 그러면 삶에 회노애락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초 :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경험했는데, 초현으로서 보면 시장에 가서 즐기거나 놀이터 가서 느끼는 잔재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가끔 생각해봐도 '남이 볼 때는 저렇게 잔재미가 없겠구나' 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다투고 화해하고 이래야 잔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부로 향한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본성 자체



로 보면 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내부에서 노는 것이 재미있고 편해요. 그 안에는 핸드폰도 없고 놀거리도 없지만, 의식을 살피고 그것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노는 것이 재미 있어 자꾸 안으로 가게 된다고나 할까요?

허 : 좋은 안식처를 찾으셨네요?

초 : 네. 앞으로는 또 모르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허 :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초 : 아니요. 부족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걸어갈지는 궁금해요. 어딘가로 가기는 갈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재미있게 여기죠. 나타나는 것에 맞추어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허 : 걸어가는 것은 초현인가요?

초 : 본성이 작동해서 가죠. 걷는다고 '아는 것' 초현이겠지만. 초현이 걸으면 대충 알아요. 인터리어를 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알겠지만', 본성이 걸으면 어디로 걸어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허 : 하시는 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초 : 지금은 마음으로 붙잡고 있거나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것을 따내야 된다' 라기보다는...

허 : 예전엔 '따내야 된다' 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초 : 그렇죠. 옛날에는 무조건 따내야 되는 거였죠. 물론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만, 이제는 프로젝트 그 자체만을 더 중점에 놓고 봅니다. 즉, 옛날에는 이 일을 따내서 인터리어가 예쁘게 나와 잘 보이면 된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 부분이 진짜 괜찮을

까?’ 이렇게 되었죠. 옛날엔 프로젝트의 외부를 봤다면 이젠 프로젝트의 내부를 보는 것입니다.

허 : 자신이 변했다고 여기는 것은?

초 : 외부에서 볼 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이런 점은 많이 느껴요. 이야기 하다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화가 났나?” 이렇게 보기도 하더군요.

천 :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가요?

초 : 그때는 본성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관여를 안 하면 가만히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초현이 거꾸로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하기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천 : 경청이라고 할까요? 듣는 것에는 차이가 좀 있나요?

초 : 듣는 것의 차이라면, 상대의 말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방어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듣죠.

천 : 힘들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힘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감정이 같이 훑칠 수도 있잖아요?

초 : 그러진 않는데, 저 사람 하는 말이 떠 있다는 것은 느껴요. 즉, 자기 안을 보지 못하고 떠서 이야기 하는구나를 느끼죠.

천 :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초 : 가만히 있어요. 때로는 제가 질문할 때도 있고.

천 : 질문해서 속이야기가 나오게 하나요?

초 :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주로 듣죠.

허 :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초 : 이 길은 걸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쁜 나비를 볼 때 일어나는 텅 빈 고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늘 일어나고 있으니 평상시의 관



찰을 통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순간 자체가 진정한 전체임을 알아채고 함께 거기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 이때 삶이란 무언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온통 빛나는 존재가 되지요. 그때의 그 느낌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차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천 : 소중하다는 것은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초 : 그 상태가 내 본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고향으로 돌아간 듯 편안할 거라는 것, 여행할 때든 그저 앉아있을 때든 상관없이 말이죠.

천 :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 : 그 작게 나타난 하늘을 못 알아차리니까요. 그래서 증폭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매일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 : 그럼 사람들에게, 그 순간을 증폭시키기 위해 조언을 한다면?

초 : 먼저 그러한 상태가 있었냐고 묻지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이 느껴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제로(0)와 같은 느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기복이 있어야 뭔가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나 이 제로상태는 '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지요.

천 : 그 제로가 의미 있다는 이야기네요. 초현 님은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뭐지?'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내면의 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그 호기심을 일으킨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단순한 '감지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감지훈련 과정이 지금처럼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첫번째 감지 연습을 해봤던 게 나인데 그때 월인 님이 했던 방식은

‘경계짓기’ 였단 말이죠. 좀더 나아가 형태, 질감을 지우고 무엇을 느꼈냐고 했는데, 그때 나에게도 체험이 일어났던 근본원인은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바로 옮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물을 보며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의가 온통 밖으로 향하니까 내부의 생각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때는 생각을 아무리 일으키려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대상과 나의 주체감으로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생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물건을 보니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진 그 놀라운 경험 후에 나는 ‘이제 그만하고 도반들에게 알려줍시다’ 하고 말았지요. 반면 초현 님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순수의식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다보니까 그때와 연결되면서, 이제 서서히 잡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평안하고 싶고, 그러다가 ‘계속 그쪽으로 가려 하는 이놈은 누구지?’ 하고 역추적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다 없는 거네..’ 라는 걸 발견한 것이지요.

초 : 그 텅 빈 마음의 강력함을 처음에 경험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시간문제일 뿐이거든요. 칠일이나 열흘 사이에는 일어나지요.

천 : 결국 깨어있기 훈련할 때 화동 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루 이틀 정도는 지루할 수도 있는 이 감지연습을 싫어도 해야 했어요. 그것이 단순하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경험이 약해지지요. 동영상 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오로지 고지식하게 그 연습을 해야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네요.

이번에 새롭게 느낀 것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을 원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것이 결과를 나오게 한다는 것이예요. 나머지 똑같이



연습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월인 님 표현에 의하면 순진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와 같이 다른 생각 하던 사람들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초 : 그러면 오래 걸리지요.

천 :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다가 중간에 ‘아닌 것 같다’ 하고 포기해 버리더군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해보고는 체험이 안 일어난다고 결론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다보면 조금씩 미세한 체험이 옵니다. 생긴 모습이 달라보이고 생생해지기도 하고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처음엔 빛 때문에 이것이 변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사과인데 왜 이렇게 커졌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변화가 오지요.

초 : 그런데 그것들은 과정이겠지요.

천 : 우리가 통나무집에서 이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무얼 했느냐 하면 ‘자연에 맡기기’라고 해서, 손이나 손바닥에 나뭇잎 올려놓고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촉감 자체가 다 생각에 붙은 느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했어요. 10개 정도 실험해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 자꾸 의식이 대상과 나에게,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주의 자체로 옮기는 훈련을 오래하다 보니 집중 트레이닝코스에서 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이 감지 집중과정(감지 인텐시브)을 깨어 있기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번에 확신을 가진 것이, 재수업으로 이 연습을 계속해 이틀만 집중적으로 해도, 또는 10시간만 집중적으로 해도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수生水

구나' 라고 '아는 생각' 이 올라오면 즉시 옮기고, 다른 사물을 보며 질감과 형태감을 느끼고...

초 :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보는 거지요. 왜 해야 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천 : 이미 약하게나마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도 다시 해보면 그것이 일어날까 궁금하네요. 깨어있기 기초과정을 해본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데이터가 쌓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그것을 한 10시간 정도 하면 일어날까요?

초 : 지루함 때문에 밀어낼 수도 있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천 : 나나 초현 님은 같은 케이스예요. 허유 님은 대학도 철학과를 나왔고 인생 초기부터 궁금함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현 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업가의 경우는 어찌어찌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초 : 옛날에는 다가오는 것들과 거의 100% 동일시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의심조차 없었지요. 예를 들면 일본에 있을 때 매달 25일이 되면 아르바이트 비용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 5일 동안은 무얼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괜찮다' 고 여기면, 굶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계획 없이 살았지요. 일본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돈 한 푼 없이 갔으니깐요. 회사도 계획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찌하다가 하게 되었지요. 약속하고 어딘가 가다가도 중간에 '그냥 여기서 놀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냥 거기서 놀아요. 누군가 '이것이 좋아요' 하면 그것을 믿어버리죠. 그런 삶이 많았어요. 그런데 천강 님이 와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할때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전에는 그것조차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흐름에 밀려서 왔지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느낌이었죠.

허 : 사업가 스타일은 아니셨네요?

초 : 전혀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허 :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초 : 회사를 차려 잘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옛날 회사에서 나올 때 '이 회사를 차려야하니깐' 라든가 '나오면 저 회사 일을 해야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기회가 되어 이렇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길이 한길이었어요. 예를 들어 커피 사업으로 바꾼다거나 하지 않고 인테리어 쪽만 계속했지요. 어찌 보면 한량 같은 스타일인데 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만 제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안 것은, 아버님과 누가 싸우고 있었는데 아들로서 제 마음에 '아버지가 맞아도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예요. 말리지 않고 말이죠. 어찌보면 굉장히 못된 거죠. 섬뜩하죠? 보통은 매달리고 울고 하는데. 그때 내가 되게 못되고 섬뜩한 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맞아도 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 어릴 때의 모습도 천강 님과의 만남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미웠던 것은 아니예요.

천 : 어렸을 때부터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보는 태도가 있었네요.

초 :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도, 머리 아프면 술 마시거나 하지 않고 양지천에 가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요.

천 : 느낌이라는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끼고 산 거지요. 생각을 동원하기보다는.

초 : 예.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체계적이지는 못했지요.

천 : 그 장점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현상이 생기고 궁금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긴 시간을 묵묵히 해냈던 거지요. 얼마든지 나나 월인 님에게 이야기 해볼 수도 있는데, 혼자 초지일관 5년씩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씩 만날 때 보면 진일보해 있더라고요.

초 : 천강 님이 던지는 말들로 인해 굉장한 알아차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그런 핵심만 짚어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여겨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지요. 이 사람이 속성이 되어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익었는지 그 타이밍을 알고 그에 맞춰 말해줘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지요.

천 : 그 길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초 :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이 없었고 접해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문조차 없었어요.

천 : 정말 그래요. 초현 님 같은 경우는 할 것이 많은데도, 다 그만두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우리 도반들이 그런 사람들만 갔어요. 먹고살 만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안 하게 되고. 처음에는 호기심과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나에게 무슨 이혜나 통찰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되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잊어버리고 말지요.

초 : 내면에서 일어나는 단계에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을 해서 가로막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책을 본다거나 얘기를 듣는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 필요 없어. 놀아도 돼. 사는 대로 살아.’ 이런 판단을 하지요. 자꾸 그렇게 판단하니까 힘을 잃을 수 있겠지요.

천 : 이것 한다고 뭐가 나아져? 먹고사는 데 무슨 차이가 있어? 당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들같이 잘 먹고 잘살면 되지? 이런 게 다 판단이지요.

초 : 그러다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 : 그래서 이 길은 혼자 가는 것보다 도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초 : 만약 월인 님이 말해준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없다면. 그런 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느끼거나 통찰이 왔을 때 물어볼 수 있고, 단계단계 있는 그대로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분....

허 : 월인 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건가요?

초 : 세 번 정도 그랬어요. 그런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 한마디에 내가 방향을 틀 수 있었으니까. 계속 가다가 뒤를 돌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거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밑에도 보게 되고.

천 : 먼저 길을 갔던 사람이, 자기도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뒤를 한번 봤었거든. 역추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초 : 그런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월인 님이 써놓은 책만을 본다면 한꺼번에 볼 거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탁 막혔을 때 뒤를 보고 물어봐야 알아듣지, 막히지도 않았는데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실 와 닿지 않거든요. 알긴 알지만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을 하나 주는 것보다. 어쨌든 끝까지 간다면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허유 : 오랜 시간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현, 천강 : 즐거웠습니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